

Information

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된
우리나라 대표 특산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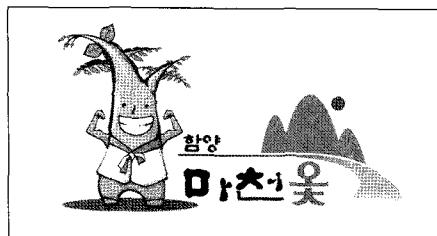
경상남도

Hamyang



함양마천옻

살소법으로 생칠을 채취하는
다른 지역에 비해 함양군 마천면은
전통을 계승한 화칠을 생산하여
양질의 옻 생산 뿐만 아니라
고려시대부터 지역적으로 가까운
통영의 나전칠기 칠의 주재료로
공급하고 있습니다.



| 상표명 |
함양마천옻

| 권리자 |
마천 옻 영농조합법인

| 등록번호 |
제 44호

| 상품분류 |
제 2류 염료(옻성분을 함유한 것에 한정함),
안료(옻성분을 함유한 것에 한정함),
도료(옻성분을 함유한 것에 한정함),
니스용 옻, 흑색옻, 옻액
제 31류 미가공 옻피(옻나무 껍질),
옻나무, 옻순

연락처
마천 옻 영농조합법인
055-960-4015

01

• 유래

예부터 전국 옻칠 5대 생산지인 마천 옻은 지리산 자락에서
생산된 양질의 옻을 남부지방 주요 특산품인 합천 팔만대장경,
전주의 부채 및 공예품, 남원의 목기, 담양의 죽세풀, 통영의
나전칠기, 고건축물의 단청 등의 칠 원료로 유명합니다.

02

• 특성

옻 생산지의 자연조건 중에서 여름철에는 일조량이 많을수록
양질의 옻을 생산할 수 있는데, 경남 함양 마천지역은 일조량이
좋으며 이는 옻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양질의 우루시올이
포함된 옻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
함양마천옻 행정자치부의 지역특화산업으로 확정되어 2년여의
타당성 검토와 연구용역을 통해 칠판사업에 대한 충분한
시장성과 경제성을 검증받았고 천연 코팅 칠판사업 기술 및
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또한, 옻칠코팅을 통한 천연
코팅된 피혁 및 환경 친화적 피혁 기술 보유와 차별화 된 항균성,
난연성, 내구성 등을 가진 피혁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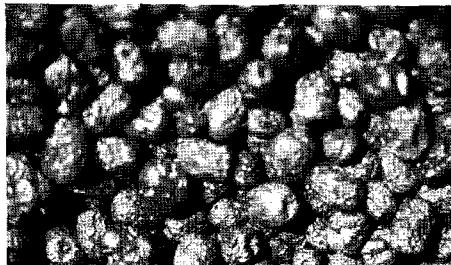
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된
우리나라 대표 특산품

경상북도

Gyeongsan

경산대추

경산지역은 지리적 특성으로
태풍과 흥수피해 등의 천재
지변이 거의 없는 천혜의 기후
조건과 일조량이 많아 **대추재배의
최적지**로서 알이 굵고 무기질이
풍부한 품질 좋은 대추로 전국
각지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.



| 상표명 |
경산대추

| 권리자 |
경산대추생산자
단체협의회영농조합법인

| 등록번호 |
제 6호, 제 7호

| 상품분류 |
제 29류 대추(보존 처리한 것)
제 31류 대추(가공한 것)

연락처
경산대추생산자 단체협의회영농조합법인
053-811-0872

01

• 유래

경산대추의 시발자는 경산시 진량읍 마곡리에서 처음 재배하여 그 일대를 대추 골이라 부르며 이름드리 대추나무가 많았습니다. 그 후 1980년부터 경산 전역에 확대되었고 재배기술이 보급되면서 현재 전국재배의 25%로 대추 명산지가 되었습니다.

02

• 특성

경산대추는 알이 굵고 무기질이 풍부한 품질 좋은 대추를 생산하여 전국각지에서 각광을 받고 있으며 70년대 초 사과의 대체작목으로 재배를 시작하였고 기후 및 토양이 적합한 입량, 진량, 자인, 하양지역을 중심으로 834㏊를 재배 년간 1,164톤을 생산하여 전국 최대규모의 대추생산지로서 인정받고 있습니다.

